

자고 깨고 반복하는 이 생활이 그대로 진리이며 참선!

21면에서 계속

쁘게 벌어들여 애를 쓰고 살고 있는데, 그 보람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나쁜 일도 맡기지만 하면 되는지

학살병화에 참석하기 위해 전철역에 내려서 집에 오려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길 건너다 보면 신호등이 있는데요, 볼 때마다 항상 빨간 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그냥 도로를 가로질러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건너가면서 '이것도 다 주인공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듯 좋지 않은 일을 하면서 맡기지만 해도 되는지요?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고등 동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 상식이나 인간 도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좋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본래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저지른 죄가 있다면 회개할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르고 저지른 것이 테이프에 녹음 돼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알았다면 그것이 지금 녹음된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바로 지금 현재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워버리십시오. 즉 말하자면 그 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한다면 바로 그 앞서 것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잘못 건너고 하는 그런 것도 자기가 저지른 죄 주인공에다 모든 걸 녹음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이왕 저지른 걸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이왕 저지르면 다시 앞으로는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저지른 거라면 바로 앞으로는 저지르지 않는다고, 그 마음에서 순수하게 깨달았으면 가면서 그 녹음테이프에다 다시 녹음을 한다면 그 모든 게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보라. 안되는 건 믿고 놓고, 되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르는 거는 모르니까 놓고,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겨, 자기가 한 발 한 발 때 놓는 거를 다 보라 그랬는데, 또 잘한 것도 감사하게 보라 그랬는데 하물며 잘 안된 거를 갖다가 놓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녹음테이프는 24시간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 초도 못 돼서 또 녹음이 되고, 일 초도 못 돼서 녹음이 또 되고, 그러니까 앞서 녹음된 거는 자꾸 없어지면서, 또 녹음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되면서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구! 그놈의 거' 하고 가슴에 담아두니 그렇게 해서 자기 가슴에 못이 되고 그것이 몇 해를 두고, 10년 20년이 가도록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것대로 그렇게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또 걸리는 거죠. 그러니 세월 가는 대로 그것도 보라 이겁니다. 여자

피 잘못된 거를 알면 벌써 잘해 나갈 것을 예약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거기가 놓고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고 또 그게 들어오고, 앞으로 잘해 나간다면 잘해 나가는 것이 녹음이 또 돼서, 앞서의 녹음이 죄 지워져 버리고 잘하는 것이 녹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녹음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남이 잘못된 걸 보고 원망한다 하면 또 그놈의 잘된 녹음은 지워지고 원망하는 것이 또 녹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원망하고 이런 거,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 모조리 놔 버리세요.

그리고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내 마음의 근본인 그 상식을 알아야 하고, 나와 더불어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을 겸손하게, 위로는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하고 아래로는 자기 아래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하고, 자기 몸으로 비유한다면 바로 자기 육신을 올바르게 잘 끌고 다닐 줄 알아야 하고, 자기 마음을 잘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해도 거기가 놓기만 하면 됩니까 한다면 그건 억지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도둑질 열 번 하고도 신부한테 고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신부한테 고하면 죄가 다 사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해 놓고 만날 고하네. 근데 그게 나는 모두 시원치 않았어요. 고하면 될 겁니까? 찌꺼기는 연방 남아 있는 거를.

그렇게 남한테 사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한테,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나한테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벌써 나한테서 잘못된 거니까, 잘못되게 한 놈도 나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겠다 하는 거를 다집하면서 또 거기가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고해성사지, 내가 잘못된 걸 타인에게 고한다고 해서 그게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건데 어디다가 고해를 합니까? 여기서 나온 거 여기가 반성을 하고 여기가 보아야지. 그리고 고해하기 이전에 잘못하지 않으면 고해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잘못 생각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간간지옥이란?

사람의 몸을 받아서 살다가 어떻게 했는데 따라 한 차원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차원의 세계인

오간간지옥이라는 것은 따로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마음 상태를 말씀하신 것인지요?

사람들은 모두 '죽으면 고만이지' 이겁니다. '아이, 죽어나 버렸으면 고만이지, 이거 정말 살기가 고역스럽고 죽겠구나.' 이겁니다. 그러나 죽어도 말입니다. 그냥 몸품이만 없어졌지 아주 죽지를 않기 때문에 죽어도 허탈이예요. 그 어리석게 '죽어야 한다.'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죽을 생각이 있으면 빠져나갈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일어난 것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삼세심은 어떻게 해서 삼세심이 되느냐, 왜 삼세심이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작년 콩치를 올해 심었는데 올해 심은 콩씨가 또 많이 열려 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어고도 그 콩씨 하나가 되어서 내년 봄에 또 심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오늘도 오늘이요, 오늘도 오늘이요, 내일의 오늘도 오늘이니까 이것이 삼세가 연결된 삼심이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삼

세심이라 하면, 내 삶에 의해서 떠나질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안의 모든 내 생명체들이, 5억이라는 생명체들이 한데 붙어서 있다가 그게 여기에 주둔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주둔돼 있으면 이 고기를 끓이면 끓이는 대로 이게 살 생이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맛을 보는 것이 한 번의 맛이 아니라 거기에서 착을 떼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내 율회에 들고 돌며 뜨거운 꼴을, 화탕지옥 꼴을 수만 수억 번을 겪어야 합니다. 이게 참 자세히 말하자면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거든지 미생물에 대한 문제는 차차하고라도 우리 인간이 먹는 집승들이 몇 종류입니까? 그러면 종류마다 그것이 한 번 맞아서 죽으면 그뿐으로 그게 떠났으면 괜찮습니다마는, 그 아픔을 당하면서 또 아픔을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몇몇 번씩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착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고기가 고기로 보여서 못 먹는다는 소리도 나왔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 마디 하면 열 마디씩 아사듯이 집승의 종류가 수 많은데 인간들이 다 그것을 끓이고 굵고 볶고 때리고 자르고 아반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오간간지옥이 다이소입니다. 이게 다 사람의 마음에 따

리고 살아나가는 생활도 당시 몸품이 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으로는 항상 진짜 당신한테, 공한 당신한테 공한 이치를 다 놓으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러다 보면 그 머느리도 한 번만 데리고 와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아주 참신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걸리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 걸려서 걸리는 거지 진리는 걸림이 없는 겁니다.

아침저녁으로 독송을 하는데

주위의 스님들께서 불경을 독송을 하던 줄도 해서 제가 '금강경을 아침저녁으로 몇 년째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뜻도 모르고 독송을 해도 복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얘기 또 해야 되겠군요. 옛날에 어느 도량에서 학인들이 결제가 되면 한 집에 모여서 참선을 하든가 경을 읽든가 이러다가 해제가 되면 나가서 또 공부해 온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결제가 돼서 다들 들어왔는데 그 집의 주지 스님께서 "너희들은 무슨 공부를 하고 들어왔느냐?" 하니 전부 무슨 경을 읽었다 무슨 경을 읽었다 하는데 한 분만 "저는 잠자고 밥 먹고 똥 싸고 있었습시다." 하거든요. 그렇게 똥 싸고 밥 먹고 잠자고 있다는 말에 "애 이놈!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잠만 자고 똥만 싸고 그렇게 했으니 너는 부목이나 해라." 하고 내 쫓았습시다. 그 때 부목을 하면서 나무를 베서 그 스님 방에 불을 때느라고 그 앞엔 자꾸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습시다.

별이 어쩌다가 방에 들어가서, 그건 입산한 걸 말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별이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반사가 되는 거를 보고 그것이 문인 줄 알고 자꾸 입으로 거기를 쫓아나고 고만 입이 뚱그러져 그만 떨어졌거든요. 떨어져서 몸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쫓다가 몸이 떨어지니까, 경도 떨어지더라. 즉 말이 떨어지더라는 얘깁니다. 몸이 떨어지니까 입도 떨어지고 입이 떨어지니까 말이 떨어지더라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이 몸으로, 사랑으로 책을 보고 이론으로다가 알고 그러다 보면 이 몸이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내면세계의 참나를, 주인공을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가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만 있다면, 몰락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바로 내 참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적인 마음으로 불질을 보고 그것을 글자 풀이하고 소리를 내서 읽는다고만 하는 것은 진짜 금강경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을 누가 읽나?' 그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누가 읽고 있을까?' 하구요.

주인공을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그 가운데서 내 참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심이 한데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합니다. 지속되고요.

그러면 삼세심이 공했다. 이 공한 자체의 나 주체의식 그 근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하천세계로 가고 이것은 중천세계로 가고 이런 상천세계로 간다.' 이것은 주체의 의식 그 자체의 근본에 의해서 세 갈래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가는 그 원리가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 네 마음은 그렇게 쓰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천세계를 비유해서 봅시다. 탄 데서 보지 말고 우리 지금 현재에 보세요! '오간간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은, 알른 쉽게 말해서 중립된 인간의 탈을 못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화랑지옥, 그 필멸 끊는, 즉 말하자면 '끊는 지옥'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보느냐? 우리가 소를 잡되도 끼로 잡거나 몽둥이로 잡거나, 하여튼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구워 먹든 볶아 먹든 끊어 먹든 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의 의식 자체는 떠나질 못합니다. 자기 육에서, 사람도 만약에 그 육에서 떠나지 못하면 그 지경이죠. 그 육에서

라서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종교가 다른데요

저는 집에 다니고 있는데 저의 며느리는 천주교일 나가요. 그래서 며느리는 마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고 있고 전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다른 종교를 가지면 이게 영적인 면에서 어떠한 충돌이 있어서 혹여나 가정불화가 생기는 건 아닌지요?

나 같은데 말씀입니다. 며느리가 천주교를 믿든지 내가 불교를 믿든지, 그 마음으로 듣기 좋게 '야, 우리 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한군데로 나가자!' 이렇게 위에서 존엄성 있게 웃으면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서, 나쁘게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마디 쫓고 마음으로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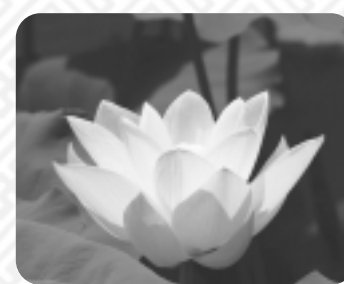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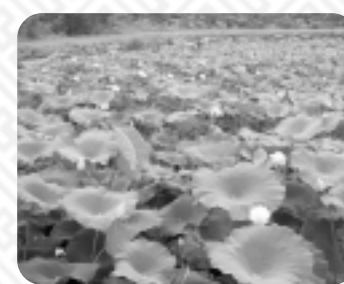
맡겨 놓으시고, 본인이 하는 것도 경을 봐서 소상히 이걸 따지지 마시고, 경을 보되 그것을 자기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힘이 없이, 책이 나를 보게 하지 마시고 내가 책을 보지 마시고 그냥 보십시오. 그

공갈 못 백련지 조성

연밭 따는 노래

상주 함창 공갈 못에 연밭 따는 저 처차야 연밭 줄밭 내 따줄게 이내 품에 잠자주소 잠자기는 어렵 짚소 연밭 따기 늦어 가오

어느 지역에서든 2~3시간이면 삼백의 고장 상주에 도착할 수 있는 이곳에 백련지가 조성. 총 10ha(3만평)규모로 조성이 되며, 연차적으로 10만평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백련이 피어나면 연에 대한 모든 연음식 연잎차 등 백련의 매력에 매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호암사 아동시설 호암룸비니에서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한 백련(연잎차)와 백련분말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향차의 체험에 빠져 보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방법

-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 이용 여주분기점에서 여주 구미간 고속도로 이용하여 함창 점촌 IC에서 내리면 5분거리
- 경남 쪽에선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이용 북상주에서 내리면 공갈못 공검지에 도착 호암백련지를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연락처 : 054)541-7862~3

부생육기(浮生六記)의 연향 차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워 보여주는 "연꽃 이야기"가 있다. 지혜로운 아내의 연꽃처럼 고운 마음을 담은, 청나라 건륭(乾隆)때 심복(沈復)이란 사람의 자서전 부생육기(浮生六記)라는 책이 있다. 심복이 부생육기를 쓴 것은 그의 아내 운(芸)에 대한 사랑의 추억 때문이다. 심복은 아침마다 아내가 내주는 차의 향이, 독특하고 은은했다. 같은 차로 수십 번 자신이 우려보아도 그 향을 따를 수 없었다. 가만히 아내의 차 끓이는 방법을 눈여겨보았다. 연못에 피는 수련은 저녁에 꽃 심을 오므렸다가 아침이면 활짝 핀다. 아내는 저녁나절 꽃송이가 오므릴 때비단 주머니 속에 차를 넣고 꽃 심에 놓았다. 차를 품은 수련은 밤새 별빛과 달빛 이슬을 맞으며 차의 향을 축축한 수련 향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침 일찍 꽃봉오리가

입을 벌릴 때 비단 주머니를 꺼내 이 차로 차를 달였다. 말단 관리였던 남편 수입으로 향기로운 고급차를 끓일 수 없어 생각해낸 운(芸)의 지혜다. 이 같은 맛을 운 이가 떠난 후에 알게 된 심복은 회한의 눈물로 아내와의 추억을 그리고 있다. 입어당 은 운은 중국문학에 있어 가장 사랑스런 여인이었으며 뛰어난 재인으로 손꼽는다고 했다. 부생육기에 나오는 수련은 연꽃을 말함입니다. 수련은 물에 떠서 꽃을 피우기에 꽃 봉우리가 닫히면 반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련 꽃 속에 차를 넣었다가는 더러운 물에 젖을 수 있습니다. 연꽃차라 하여 연꽃 속에 녹차를 넣고 연꽃을 잘라 그 위에 얹힌 물을 부어 음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음다 행위라 할 것입니다. 위 껍데도 있다시피 연 향이 너무 진 하면 그것이 연차 인지 녹차 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차의 근본은 녹차입니다. 녹차에 약간의 연향을 가미하여 향긋함을 맛보기 위함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를 들며 다도

를 운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생육기에 나오는 글은 연향차입니다. 연꽃 차는 연꽃만을 갖고 끓인 차를 말함입니다. 연꽃 한 송이 따서 얹힌 물을 부어 차를 마신들 그게 무슨 참맛 이겠습니까. 만은 모름지기 차란 서양의 커피 마시는 듯해서 는 안 됩니다. 차엔 풍류가 있고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여 도라 불이기도 합니다. 도란 예의 범절을 말함입니다. 연꽃 한 송이면 죽히 10여명이 차를 마시고도 남습니다. 왓지않게 소란스럽게 마시는 차는 도가 아닙니다. 차엔 제다 인이 있고 음 다 인이 있습니다. 만드는 이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음용하는 이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자 하여 음용 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철학이 없으면, 결코 다도인 이라 할 수 없습니다.